
2019년 제12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9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19. 9. 26.(목) 10:00~12: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총 21건 27작품 (조각 26작품, 설치 1작품)
- ◆ 결 과: 승인 15작품, 부결 12작품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번 안건: From The Form-프레임

- 차분하며 묵직한 매스감이 편안함
- 구조가 단순함
- 작품,작가 변경 후가 훨씬 좋음
-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 브론즈라는 재료를 잘 활용했음
- 작가의 이전 작품을 봤을 때 작가만의 개성을 잘 드러낼 것 같음
- 건물과 함께 봤을 때 작품 스케일이 좀 작게 느껴짐
- 비슷한 작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작가만의 경향을 잘 풀어낼 것 같음
-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안정적인 느낌이 듬

□ 2번 안건: 달콤한 하모니

- 조형의 직설성과 논리적 비약이 큰 메시지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큼
- 장소적 해석이나 맥락을 잘 고려하지 못한 조형물
- 장식적이고 설명적인 느낌이 강함
- 명확한 주제가 없어서 아쉬움
- 이전 작품보다는 훨씬 나아
- 예술적 감흥이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음

□ 3번 안건: Time Vessel

- 조형물과 랜드폼의 만나는 방식이 흥미로움
- 작가의 기존작업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재료와 색감이 장소와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 함
- 도색의 유지보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미니멀한 작품과 장소가 조화로움
- 조각적 사유와 일상의 친근함이 결합한 좋은 작품
- 대지를 끌어서 조형한 것이 안정적이고 주변과 잘 조화되는 느낌
- 좌대부분이 자연과 접합하는 것이 재밌고, 미니멀한 요소가 좋지만 색상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아 아쉬움

□ 4번 안건: 시간의 향기를 찾아서-구름 기린

- 대중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
- 동화적 감성은 느껴지지만 여전히 장식적인 느낌은 존재함
- 장식적, 캐릭터적인 느낌이 공공조각으로서는 어색할 수 있음
- 재미있어 보임, 흥미로운 작품
- 작가가 내공을 가지고 작품을 풀어나가는 힘이 느껴짐
- 미적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이전 작품에 비해서 조형적으로 많이 정제된 작품

□ 5번 안건: 축배의 향연

-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느끼기 어려움
- 지나친 색채와 흰 나뭇가지가 생명의 조화로움과 환희보다는 다소 기괴하게 보일 수 있음
- 작가의 해석과는 다르게 설치 장소에서 관람객과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상반된 조형적 성격의 부분 결합이 조화롭다고 보기 어려움
- 매체가 건축물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장식성이 강한 느낌으로 작품 감상을 방해하고, 산만한 느낌이 듦
- 조각적 긴장감이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음

□ 6번 안건: 사선을 긋다(drawing diagonal line)

- 조형적 개연성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작품의 설치 공간 좁은 것 같아서 주변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기시감이 큰 전형적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느껴짐
- 조형성이 익숙하여 신선하지 않고, 작가만의 개성을 느끼기 어려움
- 다른 작가들의 유사한 작품들이 많음
-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이 많고, 이런 경향의 작품이 유행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

□ 7번 안건: 장생도(長生圖)

-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풍을 끌어 온 것은 매우 좋으나 형태적으로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흔한 형식을 사용하여 아쉬움
- 이전 작품들을 보면 작가의 표현방식이나 형식은 다양한 것 같아서 좋음
- 작은 요소가 많은데, 요소 간 통일감을 느끼기 어렵고, 많은 색채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 하여 혼란스러움
- 각각의 구성은 흥미로우나 전체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전체성 부족
- 조각적 긴장감 부족, 산만한 조형성
- 건축물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8번 안건: 풍경 ALT.4

-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적요소와 부피감, 텍스처가 살아있는 흥미로운 작품
- 실제로 구현 가능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작가의 작품 설치경력이 많아서 실제 구현의 완성도는 높을 것 같음
- 실제로 설치된 모습이 조잡해 보일 수 있음
- 이전 작품보다 훨씬 좋아짐
- 작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잘 활용했고, 공간에도 잘 어울림
- 주변 공간이 무채색으로 유지가 되면 작품 감상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

□ 9번 안건: 공간 저 너머

- 평이하며 무난한 작품
- 장소적 맥락이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조형이 참신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범함
- 예술적 상상력과 미학적 감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공간을 막고 있는 느낌, 차라리 첫 작품에서 조금 변형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익숙한 조형을 조금 변형한 느낌

□ 10번 안건: 하모니

- 재미있는 요소가 있지만 작가의 전작과 너무 상이하여 완성도에 의문이 듦
- 단순한 작품이지만 즐거워 보일 수도 있음
- 직설적 비유가 아쉽고, 형태적으로도 평이함
- 조형적 상상력이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일차적이고 평이한 조형성을 지닌 작품
- 건축물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11-1번 안건: 식물로부터

-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큐레이팅이 있어서 5개 작품의 맥락이 느껴지고
단지와도 어울림
- 적절한 비례와 텍스처감이 좋은 작품
- 공간과 잘 어울리는 우수한 작품
- 흔히 밝은 형태이나 안정적이고 깔끔함
- 공간에 인공의 식물을 보여주는 점에서 재미있음
- 작가의 작품 경향을 잘 반영한 작품

□ 11-2번 안건: 물결-Wave

-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큐레이팅이 있어서 5개 작품의 맥락이 느껴지고
단지와도 어울림
- 텍스처와 변화감이 흥미롭지만 조금 더 역동적 웨이브가 느껴졌으면 함
- 공간의 톤과 뉘앙스에 잘 맞춘 작품
- 무난하나 작가의 이전 작품과 연결성을 갖기 어려움
- 공간에서 특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조형
- 많이 봐왔던 작품이지만 이번에는 바닥까지 신경 쓴 점이 색다르고 좋음
- 단지 전체의 작품들이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좋음
- 물결모양의 입체감도 잘 느껴짐

□ 11-3번 안건: 토러스-5개의 기둥

-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큐레이팅이 있어서 5개 작품의 맥락이 느껴지고 단지와도 어울림
- 덩어리간의 관통과 융합이 역동적 조형성을 줌
- 작품 전체적으로 화사하며 공간과는 잘 어울림
- 색 관리가 안 된다면 자칫 조잡해보일 수 있음
- 그래픽만 보면 예쁘고 잘 그려진 작품인데, 색들이 잘 변할 수 있어서 잘못하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음
- 작품 수준도 좋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참신하고 좋은 작품
- 조형어법도 참신하고 작가도 좋은 작가라 잘 풀어낼 것 같음

□ 11-4번 안건: WAVE-공간의 흐름

-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큐레이팅이 있어서 5개 작품의 맥락이 느껴지고 단지와도 어울림
- 조형적 개연성이 약하게 느껴져서 아쉬움
- 작품 표현방법이 우수함
- 단순하지만 공간과 조화로움
- 계단의 물과 연관된 이미지로 보임
- 전체적으로 세련미가 느껴짐

□ 11-5번 안건: KNOTS

-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큐레이팅이 있어서 5개 작품의 맥락이 느껴지고 단지와도 어울림
- 평이하고 무난한 작품
-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재미는 느낄 수 있음
- 미니멀한 느낌이 공간과 잘 조화됨
- 매듭, 띠 등 작가의 경향을 잘 반영한 좋은 작품

□ 12번 안건: Expose exposed 1908

- 부조의 입체성이 조각으로 변환된 매우 흥미로운 작품
- 작가의 개성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음
- 율동감 있는 형태는 무난하나 자칫 공간을 가로막는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음
- 공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
- 바닥이랑 주변공간이 조경적으로 좀 더 근사했으면 좋겠음
- 작가의 이전 작품들은 너무 좋고, 흐름이나 주름이나 본인의 형식을 잘 끌어왔지만 작품에서는 힘이 살짝 빠진 느낌이 듦
-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함
- 바로 위에 계단도 있고, 작품을 바닥에 놓힌다면 더 좋을 것 같음

□ 13번 안건: 맥(脈)

- 석재라는 재료와 조형감의 장점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음
- 형식과 내용이 평이함
- 조형적으로 평이하고 공간과 잘 어울리는지 의문이 듦
- 장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완하였으면 좋겠음
- 예술적 감흥이나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14-1번 안건: 생장(生長)의 행간(行間)

-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
- 형식과 내용이 평이하게 느껴짐
- 설치 장소가 협소한 것 같음
- 공간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미덕이 있음
- 조형어법이 수준이 높고, 센스가 있음
- 공간에 놓인 것을 보면 정갈함도 느껴지고 재미도 있음

□ 14-2번 안건: Digital Meditation

- 평면적 픽토그램의 입체화라는 작가의 의도가 읽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로봇으로 해석하게 되는 조형성이 흥미로움
- 뜻밖에 호감이 가는 작품
- 매끄럽지 않은 표면 처리가 기계적 느낌이 아닌, 디지털에 생명감을 부여함
- 매우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하는 작품
- 앉아있는 모습과 형태가 재미있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작품
- 음악을 듣는 몸짓 같은 게 친화적으로 느껴짐
- 감성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묘한 매력이 있음

□ 15번 안건: 행복한 만남-2019

- 조형이 임의적으로 느껴지면서 얇은 판으로 구성되는 입체성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짐
- 별색 도료의 유지보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일차원적인 형태와 색감이 아쉬움
- 조각적 긴장감 부족, 평이한 조형성
- 작품 자체는 좋은데, 2~3년 지나면 색상이 쉽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음
- 색상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 좋지만, 색상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지가 중요할 것 같음

□ 16-1번 안건: 산수-자연에 물들다

- 조각적 레이어로 회화성을 추구한 우수한 작품
- 아래로 흐르는 조각 개념이 좋음
- 석재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점은 신선함
- 고전적인 형태, 재료를 보면 진부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산뜻하고 좋음
- 설치 성질을 잘 활용해서 진부하지 않게 표현한 것 같음
- 작가의 기존 작품보다 변화를 줘서 많이 나아진 것 같음

□ 16-2번 안건: 꽃끼리

- 만화적 느낌의 조형이 흥미로우나 작은 틀립 조형은 불균형적임
- 장식적인 부분이 강하여 작품 감상을 방해함
- 대중에게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장식적 요소가 너무 강해서 조각적 사유가 잘 느껴지지 않음

□ 17번 안건: 온고지신-새싹

-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재료는 신선하지만 전체적 조형은 임의적으로 느껴짐
- 불규칙한 모자이크 타일의 선 처리 방식이 정교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
- 단순하여 조형적 상상력을 끌어내기는 어려움
- 도색문제가 있을 듯함
- 타일의 재료와는 잘 어울리나 전체 조형이 평이
- 공간에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친화력이 느껴짐
- 타일기법도 좋고, 작업도 좋고, 가격도 좋음
- 형태가 평이한 점이 있지만 조각에 타일을 쓴 것이 참신함

□ 18번 안건: 천년의 정원

-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재료를 잘 활용하여 텍스처와 조형감이 신선한 작품
- 구조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재질의 긴장감은 좋으나 전체 조형성이 평이
- 큰 특징은 없으나 그런대로 환경에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잘린 면이 많아서 실제로 설치되었을 때 산만하게 보일 수 있음
-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은 이전 작품들을 보면 잘 될 것으로 보임
- 주변 조경과는 이질적이지 않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느껴짐

□ 19번 안건: Space 2019 중력, 무중력

- 동그란 반지형태가 균형감과 안정감이 느껴짐
- 조형적 개연성을 찾기 어려움
- 장소적 해석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자연석과 링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 의미 없는 형태감으로 해독될 가능성이 있음
- 작가의 기존 경향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참신함
- 공간성을 잘 활용하여 공간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이 느껴지는 작품

□ 20번 안건: 내일을 위한 발걸음

- 걷는 이와 그림자, 틀어진 각도의 면적 조형 구성은 흥미롭지만 전체적으로 기시감이 있음
- 조형적 상상력 자극이 어렵고, 단순하고 평이한 작품
-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예술적 의미를 담은 작품이 필요함
- 청년주택에 설치될 작품이라 장소적 맥락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걷는’ 것에 대한 조형이 너무 익숙한 형태라 아쉬움

□ 21번 안건: The giving tree-color

- 움직이는 조형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우나 베어링의 유지관리, 돌아갈 때의 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기시감이 높음
- 놓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맥락을 잘 생각한 것 같음
- 조경적으로 자연형태를 띤 연못보다는 인공적인 느낌과 잘 어울릴 것 같음
- 주변 나무의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과 이 작품이 충돌될 것 같음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27개 작품 중 1, 3, 4, 8, 11-1,2,3,4,5, 12, 14-1,2, 16-1, 17, 19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